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21년 정기 총회 제출 회원 의견 종합

구분	회원 의견	현황 및 답변 (임원진 참석 총회 논의 결과)
협회정책 및 경기운영 관련	디지털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1 시즌부터 디지털 모터스포츠에 대한 공인 및 선수 라이선스 발급,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월중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 스포츠도 협회 주관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대회 주최측과 협의, 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공인 대회 중계 시청 가능 URL을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협회 공인 경기에 대한 상시 중계 채널(유튜브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은 관객유치 불가 상황 대비) 연관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유료 서비스(관객 대상) 발굴도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1년에는 국제대회 유치에 협회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경기 개최 환경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국제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주최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국제 경기를 주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2021 총회 개최 방식처럼 연 1~2회 정례적으로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이후 한 차례 의견 수렴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사업안에 동의하며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외부 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터스포츠 관계자의 제안이 문서 등으로 체계적으로 발의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 착수 등 인력 보강 필요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관련 예산 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산 증액을 통한 협회 인력 배치 현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대회 규정 스포팅 부문은 사무국이, 테크니컬은 전문 기술위원이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시기 및 내용적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인 대회 규정의 사전 점검을 철저하고 꼼꼼한 단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 대회 관련이 아닌 서킷 주행상품 이용과 관련한 보험은 협회의 직접 관할 사항이 아니나 정책 지원 차원에서 보험 관련 업계에 문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서킷 보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중 감염병 대응 가이드 라인을 공표하고, 연내 응급 구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코로나19에 더욱 더 안전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우선일듯 싶습니다.	-감독관 정보와 사무실 위치를 대회별로 현장 공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파견 감독관을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지요?	-2~3월 연례 서킷 안전 검수 기간에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파견 감독관 점검 사항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시즌 중 지속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기장 펜스 광고물 부착물로 사용된 못 제거와 녹슨 볼트 등이 교체되었는지 관리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상 위험이 예상됩니다.	-올해 인스트럭터 라이선스 발급 및 인력 양성에 착수할 계획이며 KSPD 전문지도사 과정 포함도 조사 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 아카데미 인스트럭터 및 서킷 개인 코칭 하는 선수들에 대한 자격 및 심사가 없습니다. 협회에서 KSPD 생활체육지도사(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시험에 모터스포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실기시험으로 포함된다면 자격 심사 및 감독은 협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규정에 레이스 디렉터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습니다.
	국내 규정과 달리 실제 경기 현장에서는 레이스 디렉터와 경기위원장의 역할 구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기초종목 육성의 일환으로 디지털 모터스포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후 타 기초종목 육성 지원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인 모터스포츠 시장 확대를 위해 기초종목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설치 주체는 서킷으로 협회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나 예정된 서킷 간담회를 통해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인제에만 적용되고 있는 TMS(Track) 를 타 서킷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대중 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록 활용 스토리텔링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인한 팬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확인 후 행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대중 관심 도모 위해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협회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1월부터 매달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용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협회 회원 확보와 저변확대를 위해 레이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식지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면 어떨지요?	-지난해 온라인 입문 교육 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 FIA 및 호주 협회와 함께 국제 기준의 교육 콘텐츠를 국내 커리큘럼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모터스포츠 각 부문별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소양 교육 프로그램과 오피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FIA 세미나 자료는 KARA 시니어 오피셜 세미나 개최시 번역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FIA 세미나 자료에 대한 공유 및 스터디, 표준 국제 교안에 대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2020년 경기장 안전 담당자와 안전 오피셜을 대상으로 비상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의료 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위원회가 의료진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공인대회 활동 의료진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피셜 교육은 진행되나 의료진에 대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난 오피셜 교육 때 이론도 중요하나 실제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유튜브가 아닌 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교육 콘텐츠의 유튜브 업로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고 발생시 오피셜, 의료진 모두 어떻게 구난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 관련 교육에 의료진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코스, 안전 파트 등을 대상으로 2개 온라인 강화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회원 교육시 비대면 분위기를 감안, 유튜브를 활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니어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위해 별도 세미나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오피셜 각 파트별 전문성 강화 교육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셜 요원과 시니어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요원은 기본기, 시니어는 사고 대처 방법 등)		

오피셜 관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오피셜 승급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 승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오피셜 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 등록 리스트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계획은 있나요? 오피셜의 경기참가도 드라이버 100경기처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피셜들의 2014년 이전 과거 경력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나, 주어진 조건 아래서라도 오피셜의 경기참가 횟수를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누적 벌점제 적용 범위가 궁금하며 혹시 요원, 신입급에 적용시 직무 기피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징벌보다는 잘한 부분에 대한 포상을 내리는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정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누적된 실수에 대한 리포트 제출 제안합니다.	-누적 벌점제는 위원장 또는 심사위원 등의 상급 오피셜들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며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이선스 발급자 기준 연간 공인경기 참가율이 궁금합니다.	-일반 회원 개념인 오피셜 D를 제외한 C등급 이상 오피셜 564명 가운데 실제 경기 참여 인원은 400명 정도입니다.
	경기일정이 수립되어 보고되면 KARA 멤버에게는 최소 2주전 안내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당일 또는 직전일에 공유 받는 문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오피셜 모집은 주최자가 담당하고 있고, 협회는 주최자가 요청할 시 부족 인원 모집을 위해 자격자분들께 급박한 상황에서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피셜의 경기 참여 일정을 각 대회 모집 채널에서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마샬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오피셜 공통적으로 라이선스 유지 필수 옵션으로 연간 트랙 마샬 참가 횟수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랙 마샬 참여 인원 감소와 관련, 협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오피셜 위원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연내에 계획을 발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급 이상 오피셜 직급은 무보수 명예직화로 운영될 수 있으면 어떨지요? 위원장 직급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가진 인원이고 위원장을 하고 싶어 분 상당수가 돈이 아닌 모터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위원의 무보수 명예직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으로 볼 때 오피셜의 전반적인 자부심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여 당해년도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A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위원장용 라이선스만 별도 발급하는 방안 제안합니다. (위원장 그만 둘 경우 회수)	-협회는 오피셜 활동을 순수한 볼런티어 참여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최자로부터 일부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지만 이를 노동의 대가 차원이 아닌 오피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전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상반기 중 오피셜 위원회의 정식 논의 과제로 상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전달하겠습니다.
오피셜 파트 배치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오피셜들이 희망하는 파트에 배치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기당 각 파트 필요인원의 절반은 파트 위원장이 모집 및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프로모터 또는 협회의 개입으로 신청자들이 희망 파트로 배치되도록 하는 방안 제안합니다. 승급 대상자의 경우 승급 대상년도 1년동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배치되었던 파트를 배제하거나 협회에서 강제로 타 피트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꿈수로 타 파트에서 딱 한번 시간만 떴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파트 (코스)에 대한 충원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피셜 참여 방식과 관련 협회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회 주최자 및 오피셜 위원회와 함께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 해 상반기 중 논의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제안 주신 내용처럼 일정 비율로 담당 보직을 순환하거나 신규 인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회 주최측과 협력하여 연내 시범 운영해 보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 드라이버, 레이스 스쿨 관련	공인 레이싱 스쿨에 대한 지원, 관리, 홍보 등 예산 편성 요청합니다. 공인 레이싱 스쿨 등록자에 대한 베네핏을 강화해 주세요. (서킷 주행비 할인, 서킷 라이선스 금액 완화 등)	-레이싱스쿨 관련한 예산 편성은 협회의 재무 상황상 당분간 검토키 어렵습니다. 다만 스쿨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협회 뉴스레터,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드라이버C 이상 발급 프로세스 강화 필요합니다. (승급 포인트 강화)	-2020 규정부터 인터내셔널C 등급 발급 방식을 강화하였고 향후 팀 추천에 의한 B 이상 발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할 예정입니다.